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은 17일 경기도 과천시 KBS 관악산송신소를 방문해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에 대비한 방송시설의 안전상태 및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했다.KBS는 관악산송신소에서 서울·과천·안양·고양·평택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시청자들에게 TV·지상파DMB·라디오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김 위원장은 특히 송신소 내 비상 발전기와 외부안테나 등 방송시설과 낙뢰 대비 보호 설비 등의 안전 상태를 확인했다. 아울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방송망의 조기 안전화와 민원 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를 살폈다.김 위원장은 "방송망의 안정화를 통해 365일 중단 없는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방송사의 기본 책무"라며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방송시설 보호를 위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